

# 내 삶 속에 자리한 도서관 이토록 멋진 공간에 찬사를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미래는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 시곗바늘에 등 떠밀리듯이 혹은 복잡한 수학적·과학적 공식에 이끌려,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 안갯속 같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짜는 일에 뛰어들 거라면 답을 내어놓을지 모르겠다. 전 분야를 두루 아우르며 내일을 만드는 곳.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원장을 만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이정원 사진 최충식

### 요즘 도서관과 일상 사이의 거리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신 퇴근 후 반신욕 시간을 빌려 톱툰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 속에 앉아 역사 서적처럼 유익한 책을 읽는 재미가 꽤 좋더군요. 근래 완독한 『우리 눈으로 본 제국주의 역사』도 반신욕 독서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어낸 우리 시선으로 세계사 속 제국주의를 되짚어보는 기회였다고 할까요. 습기에 종이가 흐물대는 부작용은 있어도, 저만의 즐거움이자 행복한 순간이었죠.

물론 도서관과 가까워지기 힘든 일상이 매우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몸담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자료를 찾을 때나 사색이 필요할 때, 늘 도서관에 갔거든요. 학문과 나에 대한 답을 그곳에서 구했던 겁니다.

### 도서관이 특별한 공간이 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저 같은 60년대생에게 도서관은 친숙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이 드물던 시절이라, 책 구경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시절에 제 손을 잡고 도서관 문턱이 닳도록 데려가셨던 분이 어머니입니다. 응암과 역촌에서 남산 어린이회관 도서실까지, 먼 길을 가는 수고에도 말이죠. 당시만 해도 버스를 타고 그 거리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뒤에는 동생들까지 동행했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린이회관을 구경하는 사이, 저는 책에 파묻혀 있었어요. 우연히 발견한 『15소년 표류기』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 삶에

서 만난 첫 도서관은 어린 저를 가슴 뛰게 한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 도서관에서 찾아낸 또 다른 것이 있으시다면요?

어린 시절의 도서관이 특별했다면요. 미국 유학 중에 경험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서관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사서를 통해서만 책을 볼 수 있던 우리나라와 달리, 자유롭게 서가를 누비고 원하는 만큼 책을 쌓아놓고 읽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웃음). 그래서 도서관에 갈 때면 책 냄새에 가슴이 뛰었고요. 수만 권의 책을 보면서 내가 찾아야 할 보석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 책 옆에 있는 저 책은 뭘까 싶어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구에도 도움이 됐어요.

특히 유학시절, 분위기가 좋아 공부하기 위해 자주 갔던 미술학과 도서관도 고마운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선 미술관 화보집을 골라 옆에 두고 공부가 지겨워지면 그 책을 봤어요. 마치 도서관이 아닌 미술관에 온 것처럼요. 낯선 미술의 세계는 고된 유학 생활에 작은 행복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쌓은 미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 덕분에 미술사 전공자인 아내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잊히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자신의 삶 속으로 성큼 들어와 낯선 세계를 보여준 도서관. 그 공간에 얽힌 지난 기억에 박진 원장은 조금 들떠 보였고, 웃음이 많아졌다. 그에게 도서관은 단지 즐겁고 신나는 장소로만



66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99

머물지는 않는다. 미래를 좇는 이답게 도서관의 내일을 상상하곤 한다. 그 상상의 출발점은 전북 김제 백석초등학교에 기증된 도서관. 아버지의 함자를 딴 박승 도서관이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저는 도서관이 책을 빌리거나 공부하는 장소로만 이용되길 바라지 않아요. 앞으로의 도서관은 한 마을, 한 도시를 대표하는 쉼터이자 사랑방이 돼야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얻고, 문화를 공유하고... 이미 도서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본 도서관도 그렇더군요. 그곳에서는 도서관이 동네 영화관이자 공연장이었어요.

2005년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머물렀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마을 해밀턴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마을회관이자 놀이터이자 휴식공간으로 두루 쓰였으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싶어 찾아봤더니 여전히 파티가 열리고, 인형과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과거의 도서관이 책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시스템, 미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이 지닌 가치를 지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요. 대화와 문화의 공간이자 세대 간의 통로로 변화하려면, 도서관에 대한 고루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주민 수요 파악도 중요하고요.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달라진 도서관에서 저는 낯선 사람들과 보드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경제학자이니 경제 관련 무료강연도 들려드리고요. 꾸준히 공부해 왔던 갈등 조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겠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이 책을 추천해 달라면, 장하준의 『사다리 건너가기』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23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일반인도 경제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며 사족도 좀 늘어놓으면서요(웃음).

한 권의 책, 한 곳의 도서관을 다시 찾으신다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녔던 제 첫 도서관으로 가고 싶네요. 오전 내내 책을 읽던 그때처럼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빠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스타일도 좋고요. 에르쿨 포와로의 명추리에 감탄할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나 『ABC 살인사건』도 괜찮아요. 말하고 보니 유학 시절의 도서관을 찾아 추억여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사실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곳을 알게 해 주시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깨우쳐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애서가로서 어떤 읽기를 권하고 싶으신가요?

책은 즐겁게 읽어야 합니다. 독서의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책이 고통스러워서는 안 될 일이지요.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무거운 책, 어려운 책을 선택하지는 마세요. 자신에게 맞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 충분합니다. 놀이처럼 지속 가능한 독서를 위해서요!

‘도서관에 들어오면 내가 왜 여기서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진 원장의 남다른 도서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 문구가 떠올랐다. 마치 그가 남긴 말 같다는 생각을 했다. 도서관 가득 배어 있는 알싸한 책 냄새를 찾아, 바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언젠가 자신이 바라던 모습의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했던 추억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

